

LPGA 데뷔 앞둔 유해란 “거리·쇼트게임 향상 주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의 관문인 켈리파이프 시리즈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고 데뷔를 준비하는 유해란(22)은 동계 훈련을 통해 비거리와 쇼트게임 등을 두루 늘려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유해란은 11일 서울 서초구 가빛섬에서 열린 옴폼 후원사 테일러메이드의 새 카본우드 출시 행사에 참석한 뒤 “미국에 가면 대회가 많고 이동 거리가 길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음 주 태국으로 훈련을 떠나 본격적으로 연습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유해란은 영암 금정면 출신이다.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출신으로 통산 5승을 거둔 유해란은 지난달 열린 LPGA 투어 켈리파이프 시리즈에서 전체 1위에 올라 2023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KLPGA 투어에서 지난해 대상과 평균 타수 2위에 오른 정도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인 그가 LPGA 투어 출전권을 두고 100명이 8라운드를 통해 경쟁한 켈리파이프 토너먼트에서 ‘수석 합격’하며 신인왕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승을 기록하면 완벽한 첫 시즌이 되겠지만, 인

영암 출신... 켈리파이프 수석 합격
우승요? 첫 시즌 적응이 목표
미국 이동거리 길어 열심히 운동
다음주부터 태국에서 본격 훈련

터뷰 등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유해란은 ‘적응’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그는 “미국에선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되니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곳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루키 시즌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예정이라 엄청난 걱정까지 하지 않고 있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그는 “잘 적응한다면 우승도 언젠가는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력 보안을 위한 준비에선 ‘거리’ 얘기가 먼저 나왔다.

유해란은 “제가 한국에서는 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 거리보다는 정확도 관련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 켈리파이프 시리즈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다. 한국에서는 위협할 것 같으면 잘라가며 원하는 샷을 하려 했는데, 켈리파이프 시리즈에서 보니 많은 선수가 투은 시도를 쉽게 보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겨울에 거리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드라이버가 잘 나와서 (연습 후) 수치를 보니 만족스럽다. 다른 나라에서 연습하면 거리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LPGA 투어 선배 박성현(30)이 “골프에선 무조건 거리는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그라야 골프가 더 수월해진다고 배웠고, 거리와 방향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거리가 더 치중해 연습하는 쪽”이라고 조언하자 유해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해란은 “이동도 많이 하고 골프장도 계속 바뀌니까 그린 주변 플레이나 잔디, 어프로치 샷 등도 더 신경 써야 한다”며 “그린 주변 어프로치의 경우 한 가지만 썼다면 4~5가지 정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비거리와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2022 LPGA 켈리파이프 시리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내년 LPGA 투어 카드를 들고 기뻐하는 유해란. /연합뉴스

탁구 신유빈, 부상 털고 완벽 부활

아시아 예선 단식·복식·혼복 조 1위... 세계선수권 출전권 3장 싹쓸이

부상에서 돌아온 신유빈(대한항공)이 2023 더반 개인전 세계선수권 출전권 3장을 싹쓸이했다.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세계선수권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신유빈은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짝을 지어 나선 여자복식에서 조 1위를 해 이종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조별 토너먼트 1위에게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가운데, 신유빈-전지희 조는 마지막 경기에서 인도의 스리자 아쿨라-리트 테니손 조에 4-0으로 완승했다. 신유빈은 임종훈(KGC인삼공사)과 조를 이뤄 나선 혼합복식에서는 카자흐스탄 선수들을 4-0으로 완파하고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이어 신유빈(19위)은 단식에서 태국의 오라완 파라낭(113위·이상 단식 순위)을 4-3으로 물러세우고 자신의 3번째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신유빈은 이번 예선에서 자신이 따낼 수 있는 모든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손목 부상으로 지난해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신유빈은 새해 첫 국제대회에서 목표를 100% 달

성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대표팀은 신유빈이 다른 선수들과 합작한 2장을 포함해 총 6장의 세계선수권 복식 출전권을 모두 손에 넣었다.

남자복식에서는 장우진(국군체육부대)-임종훈 조와 이상수-조대성(이상 삼성생명) 조가 세계선수권 무대를 밟는다. 2021 휴스턴 대회 남자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낸 장우진-임종훈 조는 2년 만에 금메달 도전 기회를 잡았다.

여자복식에서는 신유빈-전지희 조와 함께 최효주(한국마사회)-이시은(삼성생명) 조가 세계선수권에 나선다.

혼합복식에는 ‘유망주 조합’인 조대성(삼성생명)-김나영(포스코인더스트리얼) 조가 임종훈-신유빈 조와 함께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이날 진행된 여자 단식 예선에서는 신유빈이 이어 전지희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고, 최효주, 서효원(한국마사회), 이시은(삼성생명)은 2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신유빈이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여자 단식 32강 태국의 오라완 파라낭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선수 지속 발굴·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이정선 교육감, 광주체육중·고 방문 미래 꿈나무들 격려

이정선 교육감이 11일 광주체육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미래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사진>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이 교육감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체육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교직원들과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지난해 광주체육중·고등학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광주 명예를 드높였다. 한국 하계 올림픽 사상 첫 3관왕 안산(양궁),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체조) 등을 배출하는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거점형 체육 진로 중심 교육과정, 키움 영재 학급(체육) 등을 통해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그동안 광주 체육 발전과 학생선수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온 광주체육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질과 재능 있는 학생선수의 지속적인 발굴과 학교운동부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11일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미국 대학 농구리그 켄터키 와일드캣츠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게이믹스와의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바닥에 뒤엉킨 채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디오 판독 오류 곧바로 정정한다...배구연맹 기준 손질

최근 프로배구에서 비디오 판독 논란이 잇따르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판독 후에도 잘못된 판정을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연맹은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비디오 판독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경기 운영실장과 심판실장에게 교육·관리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했다고 11일 알렸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활용해 비디오 판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결과 발표 직후 경기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명확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이미 제공된 화면에 한정해 재확인을 거쳐 이를 정정하도록 가이드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비디오 판독으로 팬들에게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 각 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심

판위원을 철저히 교육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는 한국전력 미들 블로커 박찬웅의 명백한 넷터치를 부심·경기위원·심판위원으로 이뤄진 비디오 판독단이 오독해 물의를 빚었다. 7일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의 포 히트 여부를 가려달라는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의 요청에 경기위원이 여러 화면을 참고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만 보고 성급하게 비디오 판독 결과를 발표했다가 곧바로 이를 뒤집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최 감독은 각 팀에 알리지도 않고 비디오 판독의 재판독 규정을 실행해 판정을 뒤집은 연맹의 오락가락한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웅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해시태그 시그네
4관	스위치
5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8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9관	영웅, 스위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10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젠틀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